

나태와 불만은 희망을 갉아먹는 독소

권 우 상
소설가

19세기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부모는 빚을 갚지 못하여 채권자의 사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어린 ‘디킨스’는 부모를 구해내기 위해 어린이로써 가혹할 만큼 열악한 환경속에서 육체노동을 해야만 했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이래선 안돼!’라는 울부짖음이 끊어지질 않았다.

결국 ‘디킨스’는 어린이 학대를 목인했던 영국의 왜곡된 양심을 비판하는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를 펴냈고, 금세기에는 ‘세익스피어’와 견줄만한 작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근대 간호학의 기초를 구축한 ‘나이팅게일’은 불결한 위생상태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을 보고 놀라 ‘이래선 안돼!’라고 외쳤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전문적인 간호체계를 정립하게 되었다. ‘찰스 디킨스’

나 ‘나이팅게일’ 모두 자신이 경험했던 불만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세월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켰던 것이다. 우리에게서 ‘완성’을 구하기란 힘든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완성’이란 인간 절대적 희구의 대상이요, 염원의 신앙이다. 이러한 ‘절대적 원만’을 위하여 인간은 쉬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것이다.

만약 ‘이것은 할 수 없는 일’ ‘되지않는 일’이라고 단념하여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양심이 이룩하는 일이란 지금껏 선인들이 한 것 만큼도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줄 알면서도 하였기에 성취되었고, 되지않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였고, 또한 하고 있으므로 조금씩 순화되고

정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빨리 변화하는 개인과 집단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IMF 이전에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면 그 일을 포기하곤 했다. 그러다보니 직업에는 3D 업종이 생겨났고, 이 업종은 지금도 우리보다 못사는 외국인의 차지가 되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어 이제는 4D 업종으로 먼거리의 직장은 기피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겨난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쉽게 돈벌기 위해 인력은 유흥업소 등 서비스업종으로 몰렸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오락이나 도박 등으로 순간에 대박을 노리는 사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또 하나의 새로운 망국병의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지난날 IMF를 통해 조금만 힘이 들면 포기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엔 아예 기피해버린다면 한 개인은 물론 조직

의 역량마저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 교훈도 벌써 잊었는지 생산현장에서는 인력난으로 공장가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수출에 비상이 걸린 기업이 적지 않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늘 자기 자신을 부족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돌진해 남보다 먼저 나가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무한경쟁시대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창문을 활짝 열어 놓고 방안으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듯 직장내 가정에서 느끼는 ‘나태와 불만’을 ‘자율과 창조적인 희망’으로 승화시킨다면 부정은 긍정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바뀔 것이다.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는 대박심리와 불만과 부정, 그리고 나태와 안일은 개인은 물론 국가의 장래를 갉아먹는 독소(毒素)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

